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8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웅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성금요일 성찬예배 메시지

수 치(시편 83:16)

“여호와여 수치로 저의 얼굴에 가득하게 하사.” 여호와께 승리를 기원하고 있는 시편 83편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하여 기도하는 장이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마 5:43~45).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없다. 진리의 순수함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의 공의를 훼손시키고, 인간의 영광과 찬사를 만드는 거짓 사도를 주의해야 한다(고후 11:13~14).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한 번이라도 통사하고 경배하고 존경하여 본 적은 있는가? 그분에게 당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받았는가? 아니, 전혀 그분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살지는 않았는가? 진정으로 최고의 분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찬탄 존재로 여기지 않았는가? 당신은 귀여우려가 아니며 소경이 아니다. 암시를 속이지 말자. 당신의 인격 속 외식이 드러내는 거룩함이 인간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믿기는 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마 23:12~13). 암시의 소리가 하는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다(마 6:24).

주님은 우리를 이 지리로 불러주셨다.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가? 당신을 위하여 몸을 주시고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구세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회생을, 당신을 위한 그 회생을 거룩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나의 거룩함 외식 때문에 얼마나 고회를 실추하게 했는가? 지금 죽는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성경을 알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진실로 구세주를 알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벧후 3:10~13).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모두 반드시 만날 것이다. 회개할 때가 있을 때 은총의 복음을 영접하자(롬 3:22~24).

시편 83편의 이 수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찾기를 원한다(눅 15:15~18).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나의 삶이 끝날 때 무엇이 남겠는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알겠는가? 이 부끄러운 수치로 인해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기 원한다(행 7:55~56, 59~60). 주님은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수치와 남방과 실망을 당한 자를 기다리시라(마 16:24).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받아 주실 것이다(골 3:20; 눅 19:5, 9~10; 롬 1:16~17).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부끄러움뿐입니다. 수치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까지 고난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엡 2:16). 주례교구별로 진행된 사순절 특별세례기도회, 전교인이 참석한 고난주간 특별세례기도회, 성금요일 1일 금식과 성찬예배 등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과 찬송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은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안고, 더욱 십자가에만 집중하기 원합니다(마 16:24).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이(골 7:17)가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 2011년 제2차 학생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움)

*다음 주일, 2011년 제4차 성찬식(1~5부예배)

5월
교회
일정

- 1일 (주) 제4차 영안식(1~5부예배)
- 4일 (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 8일 (주) 어린이 · 어버이주일(2·3부 가족연가예배)

COMMUNION

Is not the cup of blessing which we bless a sharing in the blood of Christ?

Is not the bread which we break a sharing in the body of Christ?

(1 Corinthians 10:16)

In today's Bible verse Paul mentions that Communion is a blessing amongst God's children. When the saints join in Communion they're sharing in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From a worldly perspective one wonders how or why would someone share in such things? Non-believers see these Scripture words as strange, but believers understand the meaning.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church believers celebrated Communion,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Ac. 2:42). God's children are called into this fellowship, "God is faithful, through whom you were called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1 Cor. 1:9). Fellowship is central to authentic Christianity. Let's look at the important fellowship aspects of Communion.

Communion is a fellowship service with the triune God and other believers. Our fellowship at this meal connects us with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2 Cor. 3:14). It also connects us with other saints in the gospel, "I thank my God in all my remembrance of you. in view of your participation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For it is only right for me to feel this way about you all, because I have you in my heart, since both in my imprisonment and in the defense and confirmation of the gospel, you all are partakers of grace with me" (Phil. 1:3,5,7). This feeling is strong at Communion and is brought about by the Holy Spirit, "For by on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whether Jews or Greeks, whether slaves or free, and we were all made to drink of one Spirit" (1 Cor. 12:13). The Holy Spirit joins all believers to the Body of Christ, making each one important.

Communion is a fellowship service with the whole

church. Communion must be observed by the whole church because we cannot properly observe it on our own. There are many things in the Christian life that we can do independently, like worship, pray, and read the Bible. Communion is a fellowship service, so you cannot have fellowship with yourself. Fellowship with one another is evidence of our fellowship with Christ. The New Testament will not allow us to evade this conclusion. If anyone says they love God, but does not have fellowship with their brother then they are a liar (1 Jn. 4:20-21). You cannot love God and hate another, "Since there is one bread, we who are many are one body; for we all partake of the one bread" (1 Cor. 10:17).

Communion is a fellowship service with physical and spiritual togetherness. When we celebrate Communion we are physically together in one place, and we must also be spiritually together too. The Bible tells us that we need to keep meeting together. Sometimes sickness, travel, or whatever keeps us away but our hearts are focused on making ourselves available to be together. Communion is a service with people who have been saved by the Savior. Sinners reconciled by Christ have fellowship at His table,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Rom. 3:23-24).

My dear friends, Communion is a special gathering where we have fellowship with God, Jesus, and the Holy Spirit with other saints. We take Christ's body and blood in remembrance of His sacrifice for our salvation. The world cannot understand our fellowship, but the whole church as one body follows Christ's command without discrimination. Our Communion is a physical and spiritual act based on God's love. Let us come now and share together in the blood and body of Christ Jesus. Amen. 

성찬식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떤 떡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나
(고린도전서 10:16)



김성관 목사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성찬식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이에 대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또는 무슨 이유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오늘의 본문을 매우 낯설어하겠지만 신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신자들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교제로 부름 받았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전 1:9). 교제는 참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성찬식을 통한 중요한 교제의 측면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성찬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자들이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 식사에서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과 의 교제와 연결시켜 줍니다(고후 3:14). 또한, 성찬식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빌 1:3,5,7). 성찬식에서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은혜는 성령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 성령님은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켜 각각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 전체와의 교제

성찬식은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성찬

식은 교회 전체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적절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즉 예배, 기도, 성경 묵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약성경은 이 결론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요일 4:20~21).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지체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7).

영육 간의 교제

성찬식은 몸과 영으로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지킬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함께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계속해서 모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질병, 여행 또는 우리의 길을 막는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함께 모이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성찬식은 구세주에 의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화합된 죄인들은 주의 식탁에서 교제를 가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모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회생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취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교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릅니다. 우리의 성찬식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육신적, 영적 행위입니다. 지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십시오. 아멘. ■

십자가 복음

내가 쓸 것을 썼다
(요한복음 19:17-22)

“내가 쓸 것을 썼다”(요 19:22)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 제자들, 바울이 언급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로마인이었던 총독 빌라도의 말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피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빌라도보다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더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인기를 끌었던 예수님을 질투하였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문에 삼아 붙잡아, 최종판결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 이때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지칭했다(요 18:30).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 그를 심문하면서 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요 18:33~37).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했기에 이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매질을 하였지만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된 모든 유대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다. 이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에 그의 죄목에 대한 종교지도자들의 요구(요 19:21)에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빌라도의 말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보자.

● **후회하는 단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한 뒤 내린 결정은 무죄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다(요 19:11). 그러나 예수님을 고발하였던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요 19:12)라고 소리쳐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종용하였다. 특히 예수님이 자칭 유대의 왕이라 주장하며 로마에 대해 반역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주장했기에 이것은 유대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총독 빌라도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에게 미칠 영향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였다(요 19:15~16).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는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적용하여 십자가형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50여일 후에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고, 얼마간 있다가 승천하였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였다.

아마도 빌라도는 매혹은 후회를 했을 것이다. 당시 자신이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성난 군중들이 두려워 내렸던 결정에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것이다. 예수님을 심문할 때 자신이 예수님께 던진 “진리가 무엇인가”(요 18:38)라는 질문의 답을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렸더라면, 빌라도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였을 것이다.

● **분노의 단어**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요 19:4)는 말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다. 유대의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눅 23:14~15). 오히려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강력하게 예수님의 유죄를 주장하며 십자가형을 주장했다(요 19:6~7). 더군다나 예수님을 놓아준다면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행위라고 주장했기에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 생명의 위기감이 커졌다(요 19:12).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의 요구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기에 빌라도는 분노했다. 빌라도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눅 23:18, 22~23). “내가 쓸 것을 썼다”라는 빌라도의 말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가 담겨 있다.

● **관찰한 단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려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괴로웠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당시 전례에 따라 극악무도한 범죄인 바바와 예수님을 동시에 세웠지만, 역시 군중들의 선택은 바바바의 자유, 예수님의 십자가형이었다(막 15:12~14). 빌라도의 아내도 꿈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과 관계하지 말 것을 말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막 27:19).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촉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막 15:15).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목을 쓴 것은 예수님을 관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빌라도는 종교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가장 경건한 종교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했다. 결국 빌라도는 타협했고, 군중들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을 결정하며 그의 죄목을 쓰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종교지도자들을 향해 “거짓말쟁이들아”라는 분노와 어쩔 수 없이 내린 후회 그리고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쓴 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쓴 빌라도에게도 기회가 있다. 복음(요 3:16)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던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찬 우리 자신이 섞여 있다. 후회하거나 분노, 관찰하는 데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소비하지 말자. 나의 기도와 재산법에 따라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찾지 말고, 강도를 만나 죽어간 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인(눅 10:33~34)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분명,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자. 아멘.

메시아의 죽음 75

유다를 만나기 전
예수님의 모습

유다를 만나기 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각 복음서 기자들의 강조점은 각각 다르다. 우선 마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신 예수님이 매우 고뇌하고 있음을 밝혔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막 14:34). 동시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서도 기술하였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뉘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با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막 14:35~36). 여기서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사실을 마가는 기록하였다(막 14:45~46, 50).

마태는 마가의 기록보다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십자가 사역을 앞둔 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마 26:38)은 거의 비슷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기술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라고 묘사한 것처럼 매우 구체적이다(마 26:39~40). 또한 마가가 제자들의 실수와 연합함에 대해서 가감 없이 기록한 것에 반해 마태는 “이제는 자고 쉬라”(마 26:45), “일어나라 함께 가자”(마 26:46),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 지 행하라”(마 26:50) 등의 말씀처럼 비교적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다. 누가는 마가나 마태가 기술한 예수님의 고난이나 연합함에 대한 언급 대신에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드러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즉각적임을 기술하였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니 천사가 하늘로

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디하더라”(눅 22:42~43). 또한 누가는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진 제자들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어둠의 세력을 향해 대담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밝혔다(눅 22:47~48, 53).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향한 더욱 적극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언급했던 예수님의 고난 대신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요 18:4), “내가 그니라”(요 18:5)는 말씀처럼 당당하고 의연한 천장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하였으며, 이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을 잡으려 온 사람들을 이렇듯 걸을지다 넘어뜨렸다(요 18:6)는 사실까지 밝혔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을 앞에 당대하였다(요 18:8).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확실했기 때문이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3).

이상 살펴본 바대로 가뭇 유다를 만나기 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복음서들의 기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며 자신의 의견을 내놓거나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각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실존하셨던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동시에 실제 역사와 은총의 역사를 통하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보아야 한다(마 1:1). 내 삶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요 17:13, 5, 17).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담이며 승리다(삼 상 17:36 ; 요 16:33). 아멘.

● 매주 월요일세끼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순종과 담대함으로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다. “조심해야 한다. 복을 전하기가 힘들다. 전도지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한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주일예배를 드리고 아침 일찍 영적 전쟁터로 나간 우리 선교팀의 첫 사역, 모두를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했다. “혹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을까?” 숨을 죽이며 복음을 전하는 팀원들을 볼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나아갔던 첫날,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하느냐?”라고 속삭이셨다. 이후 우리의 사역에는 감사가 넘쳤다. 또한 너무나 순수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영접하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박진수(집사, 9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14일(목)~4월 21일(목)	청년1부 2팀	유정욱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25일(일)~5월 3일(화)	6교구 1팀	김정배

고난 속에서

그곳은 참으로 조용하고 한가로운 곳이었다. 복음을 전하던 들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마을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동거리가 길었고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 연합팀은 3개월간의 기도로 준비하며 선교를 시작하였고, 사역 국가의 선교배제 정책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전도지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 전도 문장을 얻기하는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였지만 우리 팀이 주의하고 살피며 복음을 전하던 중 사복을 입은 공인이 닥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행되고 말았다. 파출소에서 다시 시내 경찰서로 끌려가 여권을 복사 당했고, 고액의 벌금을 요구받았다. 우리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낼 수 없다고 하였더니 입국 정지 처분이 내려져 몸은 풀려났으나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수도에서 사역지까지 10시간 이상을 차로 이동하면서 힘은 들었지만 우리 팀은 찬송하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였다. 또한 영접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에 와서 그 믿음으로 전도하기를 다짐하며 감사함으로 사역을 마쳤다.

임영희(권사, 14교구)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죽었던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땅 끝까지 복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우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년 가는 단기선교이지만 경험과 지식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와 기도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선교사로 준비시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모든 훈련과 사역을 친히 담당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팀이 계획했던 첫 사역지가 변경되어 복음의 불모지로 인도하셨습니다. 팀이 머물 숙소와 주일 예배 장소까지도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시키고, 그날 그날의 사역 지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섬세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혼들에게 일상적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다가가 그들을 만나 주고 복음 전할 때 그들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을 보며 진실로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안병택(단기집사, 16교구)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나에게 정말 감동하기 힘든 일이 생겼다. 선교를 포기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지만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다. ‘주님! 우리의 손길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소서.’ 성령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리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우리의 같이 연합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선교를 준비했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그들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다. 우리를 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벌떼들처럼 사람들이 몰려왔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살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다.

구숙희(집사, 8교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안녕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시고 다시 부활하셨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니 앞으로 더욱더
 많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기뻐요.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도와 주실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진 물림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재우예요.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네
 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편지
 를 써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
 랑하셨는지 이 땅에 내려 오셔서 고
 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
 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면 그 사랑을 짐작하기 조
 차 어렵네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어
 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을 거
 예요. 하지만 저도 예수님을 존경하
 면서 도망가지 않고 용감하게 씩씩하
 게 두려움을 이겨낼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죄만 지었는데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기도도 열심
 히 하고 성경공부도 열공할게요. 예
 수님 사랑해요.
 안재우(초등2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부활 하셔서 기뻐요.
 예수님, 하늘에 제 집도 예쁘게 지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훈미(초등1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감사하고 많이 사랑해요.
 임은영(초등1부)

내 삶에서 느끼는 고난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17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이 우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을까?

사순절을 지나 부활의 소망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고난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았다.

저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는 저에게 '예수쟁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 외에도 주말에 교회를 나가므로 써 학교생활을 내려놔야 하는 것, 그로 인해 다른 아이들보다 학교생활이 좀 더 힘들게 느껴질 때, 학교라는 세상과 교회 사이의 두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문제들이 저의 고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혜(교사, 고교생)*

우선 저의 가정에서 크리스천은 저와 누나뿐이고, 친척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사나 차례 때, 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 중 차례 때는 특히 유교적인 가치관과 크리스천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지요. 또한 사회에서 식기도 등의 신앙생활을 보이면 교수님이나 또 실업을 말하기로 아신 거래처의 윗분들이 좋지 않게 보시고, 학식 겸 친목 도모 때도 술자리를 피하기 위해 거절하기도 하고 가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보시면 뒤에서 수군수군 하시는 해요. "종교는 종교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지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말을 아무리 잘 들어도 그런 상황에 대처 없는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 큰 고난이 아닐까요? *문성혜(학생, 대학교)*

'나의 삶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니, 어떤 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정, 학교, 회사 등등. 가정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었고, 회사에서는 믿지 않는 동료들이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교만한 마음과 악몽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무리를 향한 사랑은 있고, 내가 받는 그 얼마 안 되는 열심과 노력과 내가 받

은 핍박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나의 삶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나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정과 회사에서 주시는 거니까요. 나 자신을 버리고 나의 종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일을 깨닫게 되었어요(갈 2:20). *임용현(장사, 청년)*

저는 고난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서 오는 것 같아요. 원래 죄를 짓는 본성 때문에 자꾸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많이 들고, 그래서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니면서 또 모임을 좀 쉬고 싶고 내 몸이 편했으면 좋겠고 내 시간도 갖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대학부 가서 말씀 듣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갈등이 되고 고된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죄된 본성들을 이겨야 하는 데서 고난을 느끼고 있어요. *노현민(학생, 대학교)*

저는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눈치 보일 때가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열심이 공부해야 할 때인데, 부모님은 주일에도 공부해야지 왜 하루 중일 교회에 있는나고 하시거든요. 사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기에 "엄마, 아빠 예수님 믿어야 돼요"라고 당당히 얘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주눅 들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 교회 이야기를 꺼내면 어느새 대화의 분위기가 여색해진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라기보다는, 눈치 보는 제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영원의 관점으로 가족들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생명이며 주님이 그 영혼 구하리라 생명 주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니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눈치 보기보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유종민(장사,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 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었다. "이 치에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만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아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골 2:8-9*.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취고 죄와 영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걷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1년 4월 24일(토) 5:30(토)
시작시간: 4월 24일(토)
종료시간: 4월 25일(일)

2011년 청년부

가정, 결혼, 연애

1st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4/30)

2nd 패럴토의(5/7)

★ 청년부 회원이 아니셔도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004	박호진	영아부	13	송성	2017	전영호	양육반	1	장정애
2005	장호준	영아부	12	송성	2018	김형준	양육반	6	김은숙B
2006	김유자	영아부	12	송성	2019	오재현	양육반	7	오준분
2007	안재이	영아부	6	송성	2020	박정욱		20	황이희
2008	유양준		7	전경규	2021	박슬기	양육반	2	김영주
2009	전홍운	양육반	19	전숙희	2022	김다희	양육반	2	최영호
2010	한상혁	양육반	10	한정현	2023	김준현	청년1부	1	
2011	유덕구	사람부	25	허순자	2024	최희정	대학부	8	김인덕
2012	박태연	사람부	25	김경순	2025	정영철	양육반	21	정기순
2013	윤현지	유아부	13	권진희	2026	손보미	양육반	10	허순자
2014	김현수	양육반	24	방소애	2027	김영준	청년1부	22	이성민
2015	김영애	예배부	25	태일희	2028	정영호	양육반	16	김길
2016	이경환	양육반	14	류동원					

